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들의 국제협력 및 연대*

이 영 학**

1.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의 역할

기록은 역사의 증거물이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를 설명하거나, 증거할 수 없다. 기록은 역사의 중요한 흔적이며 징표이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 기록을 수집하고, 잘 관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아카이브즈(Archives)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Manuscript Repository)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곳이다.¹⁾ 그곳에서는 역사

* 이 글은 2008년 10월 2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문가 초청 국제행사」 중 ‘기록관리전문가 워크숍’에서 기초발제한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1) 아카이브즈(Archives)는 생산 출처별로 이관되거나 입수되는 기록을 보존하는 곳이고, 매뉴스크립트 보존소(Manuscript Repository)는 모(母)기관이 아닌,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조직·가문·개인의 기록을 수집하는 기관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적으로 의미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분류하여 활용한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은²⁾ 계획을 세워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분류하여,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에 활용하게 하거나 혹은 열람·전시·교육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역사의식을 고양시킨다.

정부의 아카이브즈들은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 전반적인 사항을 보여주지만, 공공 아카이브즈나 민간 아카이브즈 및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들은 여러 분야로 특화되면서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피지배계층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그들이 남긴 기록을 수집하거나, 혹은 그들의 삶과 인식을 구술로 수집하는 기록관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³⁾ 또한 기록관에서는 고난이나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헌 기록이나 구술 기록을 수집하여 연구자 혹은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묻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역사화함으로써 그 사건을 성찰하게 한다.

아카이브즈(Archives)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Manuscript Repository)에 근무하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은 기록이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의 수집과 관리 및 활용에 임하고, 다른 한편 기록관리를 통하여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이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이관되고 수집한 기록들을 정리·분류·기술하여 기록을 활용하게 하는 즉 ‘기록을 재창조’하는 전문가이다. 그들은 기록의 생애주기에 개입하여 기록유산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다. 특히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피억압계층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여 활용하

2) 미국에서는 Archives에 근무하는 사람은 Archivist, Manuscript Repository에 근무하는 사람은 Manuscript curator, Record center에 근무하는 사람은 Record manager라고 분리해서 부르는데(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기록관리전문가’라 부르기로 한다.

3) 피지배계층들은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경험은 주로 구술기록으로 재현된다.

게 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한다. 혹은 집단 학살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관리·활용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 대학살은 범죄이며, 그것은 인류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한국현대사에서 민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층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가를 보여주는 기록들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유대인을 얼마나 잔혹하게 집단 학살하였는가를⁴⁾ 전시관과 기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들은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적 기억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즉 과거 청산, 과거 복귀, 역사화 등의⁵⁾ 작업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산과역을 담당하고 있다.

2. 기록관과 역사 기억

한국 현대의 기록관 역사는 매우 짧다. 조선시기의 기록관리 전통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단절되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민간기록 관리는 물론이고 공공기록 관리도 경시되었다.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되어 정부기록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요한 공공기록은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4)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하 독일군이 약 6백여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5) 전진성, 2008, 「대항기억을 넘어서」,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인류 비극의 역사에 대한 자기 성찰』,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 전문가초청 국제행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파기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어 방치되었다.⁶⁾ 공공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부터 높아졌다.

2000년 이후 공공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04년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정책에 힘입어 공공기록 관리는 크게 강화되었으며,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으로 승격 개편되면서 조직과 기구가 확대되고 국가기록관리를 선도해가게 되었다. 2007년 국가기록원 산하 나라기록관(Archives)이 새로 설립되었고, 아울러 대통령기록관도 설립되어 전임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50여 개의 중앙부처에서도 이전의 문서보존소를 리모델링하여 기록관(Record center)으로 새로 자리잡아갔다.⁷⁾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민간기록의 영역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립영상아카이브즈가 설립되어 영화 필름을 수집·관리하게 되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2000년 이후 종교기록관, 기업기록관, 대학기록관 등이 설립되면서⁸⁾ 각 부문의 기록관리가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10여 개 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발한 과거사 진상 규명작업을 벌여왔다. 과거사 규명작업을 행하면서 매뉴스크

6) 세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한 특집 기사 ‘기록이 없는 나라’ 1회~9회 (『세계일보』 2004년 5월 30일~6월 9일); 감사원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2005년 10월 27일

7) 2008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Archives)으로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고, 기록연구소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8) 종교기록관으로는 조계종 기록관, 천주교 기록관, 신일교회 기록관 등 개신교 기록관이 생겼고, 기업기록관으로는 posco 역사기록관, 대학기록관으로는 서울대 기록관, 고려대 기록관 등이 생겨났다.

립트, 자료, 문헌 복사, 구술기록 등의 많은 기록을 수집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들은 앞으로 1~2년 사이에 활동을 종결하게 된다. 이 위원회들이 활동하면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매뉴스크립트 등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사기록관(가칭)’을 설립하여, 활동과정에서 어렵게 수집한 매뉴스크립트, 구술기록 등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⁹⁾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Manuscript Repository)가 설립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나 ‘역사기록관(가칭)’은 과거 역사 속에서 조명받거나 관심을 받지 않았던 민중, 소수자, 소외계층, 피해계층 등이 걸어온 삶을 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관은 기록을 수집 관리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잊혀진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좀 더 객관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데 기여를 한다.

3.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2002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2003년부터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기증자수는 650 여명, 수집량은 70 여 만건이다. 최근에는 문헌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구술자수도 240 여명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현재 기록을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올해(2008) 13만건 정도 수

9)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집하였다.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의 기록들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한 개인, 단체, 계층들이 생산한 것을 수집·기증·구매한 것이다. 정치인, 지식인, 운동가들이 쓴 일기, 회고록, 저술, 구술 기록을 포함하고, 노동운동 단체와 학생운동 조직 및 사회운동 단체들이 발간한 선언문 및 정세보고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기록들을 통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해갔으며, 발전해갔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정착되어가는 사실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전시관을 통하여 자료를 전시하고 또한 자료를 통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시민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계속 지켜나가고 생활 속에서 확대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온라인 전시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홀로코스트 기념관(Holocaust Memorial Museum)은¹⁰⁾ 미국 워싱턴D.C. 중심인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위치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설립은 1979년에 대통령 산하에 전담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8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3년에 완공되었다. 건립비용은 약 1억 6천 8백만불(건축 시설비 9천만불, 전시 관련비 7천 8백만불)이 소요되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1986년경부터 자료 수집 활동을 벌여 2008년 현재 약 1만 3천여 점의 박물관류(Objects), 개인기록·회고록·필사본을 포함한 1억 7천만 쪽의 문서기록, 45개국 22개 언어로 된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정부 및 비정부 문서들, 개인구술 역사증언 약 9천 건의 1천

10) Henry Mayer, 2008,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집단기억’의 개발」, 『기억과 기록을 통해 본 인류 비극의 역사에 대한 자기 성찰』,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 전문가초청 국제행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간 분량의 필름과 동영상, 약 8만 항목의 사진 영상의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유대인을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하였는가를 전시관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에 관련된 역사기록을 수집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993년 4월 기념관을 개관하였는데, 현재까지 총 2,700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다고 한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얼마나 잔혹하게 유대인을 학살하였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으며, 그에 관련된 문헌, 초고, 사진 등을 통하여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통해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살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임을 느끼게 된다.

동아시아에서도 전쟁 시기의 대량 학살, 혹은 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시기 수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었으며, 그 예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인민군과 한국군에 의한 집단 학살 등이 행해져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국립히로시마원폭사물자추도기념관, 평화기념자료관 등을 통하여 태평양전쟁 당시의 학살과 그 관련 기록들을 수집·관리·전시하고 있다. 중국은 남경대학살 기념관을 통하여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대학살에 대한 기록들을 관리·전시하고 있다.

그 외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과 독재 통치의 시기에 인권이 얼마나 참혹하게 억압받고 말살되었는가에 대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그것에 대한 기록을 수집·관리·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도록 도와준다. 그곳의 매뉴스크립트 큐레이터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근무

하고 있다.

4.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 간 국제협력

20세기 중엽 이후 세계 각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아픈 경험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게 되었고, 그 중심 작업이 기념관 혹은 아카이브즈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설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각 기록관들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특징적인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세기 전 반부의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통치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기록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았던 지역의 그 흔적들,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량 학살의 기록들 등등 무수하다.

각 기록관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그들의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의 연구자 및 기록관리전문가뿐 아니라, 외국의 기록관리전문가들과도 교류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아키비스트 윤리규약¹¹⁾ 명시한 대로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이 완전한 통합성을 갖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계속 과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역사적 보존기록을 그것이 가진 역사적, 법률적, 행정적 맥락에서 평가 선별 보존해야 하며 출처주의 원칙을 지키고, 기록의 본래적 연관성을 명백히 해야 한다” 등의 항목과 더불어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리 지식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쇄신하고 연구결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항목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 국내외

11) 1996년 9월 ICA 제13차 북경총회에서 아키비스트 윤리규약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이상민, 1999, 「ICA 아키비스트 윤리규약」, 『기록보존』 12호, 정부 기록보존소에 실려 있다.

의 연구자 및 기록관리전문가와 교류 협력하여야 한다. 국내의 연구자와 기록관리전문가의 성과들을 끊임없이 흡수하여야 하며, 나아가 외국의 기록관리전문가들과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서로 교류하는데 관심의 영역이 될 수 있다.

- 1) 매뉴스크립트를 수집하는 방법
- 2) 매뉴스크립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정리, 기술, 분류의 방법)
- 3) 매뉴스크립트를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방법
- 4) 매뉴스크립트를 웹서비스에 활용하는 방법
- 5) 매뉴스크립트 활용을 통한 출판, 교육의 방법
- 6) 기타

첫째,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면 의미가 있는 역사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기증 혹은 구매하는 방법은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서로 기능이 유사한 기록관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등이 관심대상이다.

둘째, 매뉴스크립트를 수집한 후 정리·분류·기술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효율적인가? 예를 들면 기록을 수집한 후 등록 방법을 기록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혹은 기록의 획득처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나아가 분류·정리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나라의 역사적 특성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등등의 고려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매뉴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감흥을 느끼게 할 것인가?¹²⁾ 관람객의 동선(動線)을 어떻게 정하

12)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전시방법은 인상적이다. 입장할 때 게토(Ghetto; 집단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 신분증을 나누어주어, 그 사람의

며, 시청각 자료는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넷째, 매뉴스크립트 보존소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들 중 핵심적인 기록을 발췌하여 웹서비스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현대는 점점 인터넷이 확대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인터넷의 웹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어떻게 출판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보존기록을 매개로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즉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관리운영 방식은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자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부합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각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 근무하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상호 교환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자기 기관의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해가면서, 그를 바탕으로 독자적 운영방식을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관리전문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민계층의 지난한 노력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다. 반면에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인간에 의한 대학살이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임을 깨닫게 해준다.

처지가 되어 보도록 한다. 실제 계토에 수감된 유태인들의 신발, 가방, 머리카락, 인물 사진 등을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생생함을 느끼게 한다.